



**신한은행, KS-SQI 은행부문 7년 연속 1위**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0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7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꾸준히 개선 활동을 펼친 것을 인정받아 은행부문 7년 연속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한은행 박현준 부행장(왼쪽)과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롯데정밀화학, 보바스기념병원과 환아가족 힐링여행 지원**  
롯데정밀화학은 지난 달 30일 보바스기념병원, 보바스어린이의원과 함께 환아가족여행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정밀화학이 후원하고 보바스어린이의원이 진행하는 'mom(맘)편한 힐링타임 파인트립' 사업은 장기간의 치료와 입원으로 여행을 경험하기 어려운 환아가족들을 대상으로 여행을 통해 활기를 찾고 재활의 희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왼쪽부터) 보바스어린이의원 윤연중 원장, 롯데정밀화학 정경문 대표이사, 보바스기념병원 박진노 병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정밀화학



**하나은행-대한LPG협, 친환경 LPG 차량 보급 맞춘 업무협약**  
하나은행이 대한LPG협회와 '친환경 LPG차량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협약으로 하나은행은 환경부와 대한LPG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사업'에 동참한다. 정석화 하나은행 리테일그룹장(왼쪽)이 이필재 대한LPG협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기보, 청년기술평가 체험단 발대식**  
기술보증기금은 '제3기 기보 청년기술평가체험단'에 선발된 245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30일 발대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체험단은 대학생 등 구직자들이 기보 직원과 함께 우수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 기보의 기술평가 과정을 체험하고, 체험기를 작성해 장래 구직희망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기보

#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윤 위 종 역**  
**잠시 쉼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살바싸움을 하고 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410원(16.4%) 오른 1만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80원(2.1%) 깎은 84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이런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며 각각의 입장을 대변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한국 경제 역성장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과거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하던 시절에는 노동자들의 부가가치 창출 대부분이 회사에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겪곤 했다. 부의 편중심화 현상과 사회불만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년새 최저임금 인상은 폭이 경제성장률을 웃돌 정도로 과도하게 높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나 자영업자들은 '알바보다 못한 사장'이라고 자조할 정도로 환경이 악화돼 있다.

그래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화하는 제안도 나왔으나 최저임금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대두됐고, 6월 29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의 지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로봇,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발달 속

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로 그 동안 주저했던 기술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산업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갈수록 사람의 입지가 줄어들다'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듣고 있는 목소리가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해, 챗봇 같은 경우 수많은 상담사들을 대신할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다. 로봇은 단순 노동을 대신하며 자리를 채우고 있다. 서빙로봇에 이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의료정보화 등등을 보면 비전문직 노동자들의 역할을 이미 대체할 수준까지 발달했다.

최저임금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숙련된 전문직의 경우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고 있지만 단순 노무직의 자리는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인간비에 압박을 받은 사용자 측이 사람대신 기계 사용을 계속 늘릴 경우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산부부장 yhj@metroseoul.co.kr

# 현대백, 17개 아동센터에 마스크 등 온정 나눔

**마스크 1.4만장 위생용품 1200개 태블릿 PC 180대 등 전달키로 그랜드 바자 수익금도 일부 기부**

현대백화점이 아동 복지 및 아이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예년보다 지원의 손길이 더욱 필요해진 지역아동센터에 위생용품 및 온라인 학습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5개 점포와 결연을 맺은 지역아동센터 17곳에 마스크 약 1만4000장,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약 1200개, 태블릿 PC 180대를 전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 입점 협력업체의 재고 소진을 지원하기 위한 '그랜드 바자'를 진행하고, 행사 수익금 일부를 기부키로 한 바 있다.



29일, 서울 구로구 행복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한 지원 물품을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이번 지원에 앞서 각 점포별로 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파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년보다 지원

물품의 종류를 늘리고 구하기 어려운 물품을 일괄 구매해 전달했다는 것이 현대백화점 측 설명이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인사

-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정책기획관 최정석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운영지원과장 김경열 ◇서기관 전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심경보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조상민
-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서을수 ◇서기관 전보 △생활용품 상표심사과장 엄기훈 △방송미디어심사팀장 임현석 △서울사무소장 이동걸
-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김지연 ◇과장급 임용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정소영
- ◆통계청 ◇일반고위직공무원 전보 △통계교육원장 은순현
-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장 이경근 △광주지방보훈청장 임성현 △보상정책과 생활안정과장 조경철 △복지증진국 복지운영과장 박용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윤영석 △경기

- 남부보훈지청장 김남영 △경기북부보훈지청장 황후연 △경기동부보훈지청장 김장훈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이광현 △국립이천호국원장 이순희 △울산보훈지청장 김상출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강석두 △전남동부보훈지청장 김영진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유형선 △국립임실호국원장 김덕석
- ◆BNK투자증권 ◇승진(이사대우) △FICC솔루션부 김남원
- ◆신한생명 ◇신규선임 △부사장 DB마케팅그룹 이기흥 △상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유희창
- ◆한국감정원 ◇본부장 △수도권본부장 정상규 △서남권본부장 백승규 ◇실·처장 △ICT추진실장 임성기 △부동산통계처장 김승진 △평가관리처장 채성훈 △녹색건축처장 윤종돈 △시장분석연구실장 강성덕 ◇지사장 △서울강남지사장 김상윤 △서울남부지사장 권용수 △경기남부지사장 서경화 △경기동부지사장 이남훈 △경기북부지사장 최경현 △경기서부지사장 박영래 △춘천지사장 이정섭 △강릉지사

- 장 윤종훈 △천안지사장 마정호 △충주지사장 이정환 △광주지사장 김재남 △제주지사장 장덕자 △부산서부지사장 김중환 △울산지사장 윤관성 △진주지사장 박창일 △대구지사장 한익현 △안동지사장 장우석
- ◆하나금융투자 ◇상무대우 승진 △실물투자금융3실장 정원재 △유동화금융실장 서한서 △투자심사실장 윤현석 △영업부금융센터장 김용수 ◇부사장 선임 △IT지원실장 신승철 △인력지원실장 정석용 △준법감시실장 이의수 △신림역시점장 김원림 △범어동시점장 정용범 △압구정금융센터장 김동희 △인천시점장 정진일 △은평시점장 김상진 △익산시점장 유성수
- ◆BNK 부산은행 ◇부실점장 승진 △외환사업부장 정재하 △일광산도시점장 김형열 ◇부실점장 전보 △구로디지털시점장 이창민 △미남시점장 강균화 △염곡동시점장 이상경 △투자금융부장 신동훈 ◇3급 승진 △IT기획부 승위창 △W스퀘어지점 김동진 △남천동지점 김지영 △디지털사업부 우영석 △디지털전략부 손지현 △신협사업단 김성일 △여신심사부 허

- 동은 △연산동금융센터 신희병 △좌동지점 신성 △카드사업부 김길완 △투자금융부 백승기 ◇4급 승진 △IT개발부 이동규 △IT개발부 허오근 △구서동금융센터 김혜경 △리테일금융부 김세진 △마케팅추진부 염지연 △황진 △시화공단지점 김수한 △여신기획부 이창선 △외환사업부 신정은 △이선지 △인사부 김지훈 △잠실지점 김중웅 △재무기획부 서정탁 △채널운영부 김원익
- ◆교보증권 ◇신임 부서장 △금융상품1부 송기호 ◇전보 <지점장> △사당동지점 방성훈 <부서장> △금융상품2부 고광서 △재경부 김양석
-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 △사업감사담당관 김세환 △연구개발총괄팀장 김상호
- ◆GC녹십자 △부사장 임승호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처장 겸 고전번역전문도서관장 권경열
- ◆예술의전당 △공연예술본부장 박상훈 △감사실장 태승진 △미래전략실장(직무대행) 김세연 △공연사업부장 양우제 △교육사업부장 김미희 △영상문화부장 손미정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장 이호준
- ◆세계한인무역협회 ◇지회장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손헬렌 △싱가포르 김종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진흥본부장 김종영
- ◆한국일보 △주필 이종재 △뉴스룸국국장 이태규 △ 제1부문장 박익근 △ 제2부문장 김정곤(사회부장 겸임) △ 제3부문장 이영태 △ 디지털뉴스부장 박선영 △ 멀티미디어부 기획영상팀장 김주영 △ 디지털전략부 디지털전략팀장 김주성 △ 국제부 차장대우 강은영 △ 사회부 차장대우 김정우 △ 산업부 차장대우 김기중 △신문국 국장 정진환 △ 에디터 겸 논설위원 조재우 △ 최형철 △ 조철환 △신문국 에디터 겸 IT전문선임기자 최연진 △ 에디터 겸 영화전문기자 라제기 △ 종합편집부 차장대우 배성재
- ◆아시아투데이 △연예기획부장 조성준
- ◆광주매일신문 △전무이사 겸 편집국장 이경수 △사업본부장 오성수